

석유화학 신입사원 연봉 2835만원

인크루트, 대기업 263사 평균 2767만원 ... 대림산업 3800만원 최고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767만원이나 연봉 차이가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는 주요 대기업 263사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공동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276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기업 중 대졸 초임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대림산업으로 3800만원에 달했던 반면 가장 연봉이 적은 곳은 1800만원으로 격차가 20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권의 평균연봉이 3156만원으로 가장 많아 가장 적은 식음료 업종(2359만원)과 797만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금융권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2890만원 ▲건설 2850만원 ▲조선·중공업·기계·철강 2836만원 ▲정유·석유화학 2835만원 ▲제약 2777만원 ▲자동차 2768만원 ▲정보통신 2765만원 ▲유통·무역 2617만원 ▲기타 2478만원 ▲외식·식음료 2359만원 등이다.

회사별 연봉 격차가 큰 업종은 건설, 제약, 조선·중공업·기계·철강 등이었는데 건설업은 최고 연봉이 3800만원, 최저연봉은 2200만원으로 차이가 1600만원에 달했다.

조선·중공업·기계·철강 역시 최고연봉(3600만원)과 최저연봉(2000만원)이 16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연봉 격차가 가장 작은 업종은 기타 제조업으로 최고연봉(3000만원)과 최저 연봉(2400만원)의 차이가 600만원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05/10/05>